

공동체 소식



부활 제3주일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넘어,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이며, 믿는 모든 이들의 희망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부활시기’ 안내

- 삼종기도: 부활삼종기도,
- 신앙의 신비어: ‘다’ 양식

■ 첫영성체를 앞두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 대상:
김로즈 로즈 (김지혜 수산나의 녀),
박경민 다니엘 (박동희안나의 자),
김정빈 바오로, 김정훈 로베르토 (장보혜 프란체스카의 자)

■ 본당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월정기회의

- 일시: 4/15 (주일), 교중미사 후.

■ 맨하튼, 로렌스 공동체 미사

- 미사 : 결정 후 공지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34	217	163	137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차 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폴라스티카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명희, 정연숙, 박동희
차 주	조경희, 박계숙, 박주연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티노
차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4/8	40 명	176 달러	920 달러
김창식, 김태선, 김정원, 김진미, 박동희 (총 5세대)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넷길을 걷는 교회를 불러 파스카를 경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성찬의 신비를 거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림 묵상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루카 24,15-16)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다가가시어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영광이며 죄와 죽음, 미움과 이기심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3,13-15,17-19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라?”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

제 2 독 서 :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2,1-5 <그리스도는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35-48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생명의 말씀

삶으로 드러나는 부활의 진리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어는 “내게 진리인 진리를 찾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고 또 죽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이념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른바 객관적인 진리를 찾아낸들 그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표재명, 『키에르케고어 연구』에서 재인용)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인이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바가 모두 진리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어는 이를테면, 진리란 차가운 이성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이를 살아가야 하는 성질의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규범은 단지 그 말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시어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단지 이천 년 전의 역사적 사건일 뿐인가요? 혹은 추상적이고 알쏭달쏭하지만 믿어야 하는 교리 상식에 그치는 것인가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 이상으로,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곧 매일같이 자신의 죄와 악습에 대해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 밤새 자신을 괴롭혔던 미움을 용기 있게 털어버리고 용서의 다짐으로 매일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강요하는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며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는 것 등을 통해 부활의 삶을 직접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 복음에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며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온 세상에 선포할 것을 당부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요? 말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더욱이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불가해한 신비를 말로만 떠든다 한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뿐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직접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4-35)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 부활의 의미와 진정성을,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최규하 다니엘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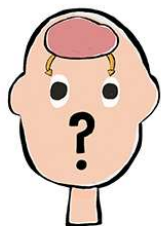
있는 그대로

눈이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의외로
 눈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방식으로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아닐까요?

있는 그대로.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루카 24,37)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기도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침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생활의 활력소. 종일 주님 안에 머무름. 기쁨. 되어가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심. 꾸준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싶음. 그리고 나누고 싶음. (2017.05.23)

미사를 드리는 중에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무뎠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라고 간절히 청함. 세상의 빵으로 밥으로 살고싶은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심. 감사함. 분명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들. 부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가오는지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 참 부활의 길이고 기쁨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심. (2017.04.16)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했던 기도들입니다. 사실 매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글로 정리한다는 것은 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도와 성찰을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하루가 무기력과 분노, 그 밖에 부정적인 감정들로만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깊고 민감하게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내 삶에 주님이 깊이 들어와 계시며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기도만 한 게 없습니다.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언제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성찰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랑의 도구일 뿐 제의지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저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저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더 기쁘고 나은 삶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와 성찰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에 맛 들였습니다. 그 사랑에의 초대는 결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저를 설레게 합니다.

- 이상호 비오 | KBS 아나운서

교리상식



대세는 어떻게 주나요?

전쟁 때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 등 사제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주는 세례를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를 줄 때는 가능한 한 증인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례를 준 사람은 자신이 대세를 준 사실을 빨리 본당에 알립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는 깨끗한 물을 세례자의 이마에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합니다. 비상시에는 신자 누구나 세례 때 받은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고, 세례 받는 이의 상태에 따라 ‘임종 대세’와 ‘조건 대세’가 있습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